

사회

설 대목 구제역·채소류 폭등 틈타

돼지고기 등 '가짜 국내산' 판친다

광주·전남 한달간 130곳 ... 지난해 보다 2배 늘어

설이 다가오면서 구제역 여파로 국내산 돼지고기가 품귀현상을 빚고, 채소류 등 각종 생활물가가 폭등하는 틈을 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설을 대비해 최근 한 달간 광주·전남에서 '원산지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건수(57곳)에 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128%(73건) 늘어났다. 여기에 원산지 미표시 건수(45곳)를 포함할 경우 광주·전남에서만 원산지 표시 위반

으로 총 175곳이 적발됐다.

특히 구제역 파장으로 육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산이나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인 업소가 24곳이나 적발됐다. 아예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각각 9곳, 5곳에 이른다. 돼지고기의 경우 칠레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광주의 식당과 미국산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인 순천의 족발집이 각각 적발됐다.

이와 함께 최근 채소값 급등의 영향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한 업체가 54곳이나 됐다. 이처럼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미

표시 적발 건수가 지난해 설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확산과 배추값 폭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남지원은 보고 있다.

실제 광주의 한 음식점은 무려 860kg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도의 한 식품 유통업체는 도진도에서 재배된 배추를 고가의 해남산 배추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일명 '포대같이'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남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유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원산지를 속인 농산물을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을 들어 구제역과 채소값 급등의 여파로 육류나 김치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원산지 표시 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광주·전남지역 음식 관련 업체 9만24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119 사다리차 절반이 노후 운행정지

화재진압·구조 차질 우려

광주시 소방본부가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10대 중 노후 사다리차 5대의 운영을 정지하기로 했다. 사용기한이 지난 고가사다리차에서 고드를 제거 작업을 하다 소방대원이 순직된 사고(광주일보 1월 24일 7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이 결정했거나 대형사고 발생시 화재진압과 구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고드를 제거 작업에 동원됐다가 사고를 일으킨 고가사다리차를 포함해 내용연수가 2~3년 지난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사다리차 2대 등 4대와 안전이 우려되는 또 다른 고가사다리차 1대 등 모두 5대의 운영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소방본부가 보유한 고가사다리차 5대와 굴절사다리차 2대, 굴절사다리차 3대 등 5대만 운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

해 동부소방서 고가 1대, 서부소방서 굴절 1대, 남부소방서 고가 1대, 북부소방서 굴절 1대, 광산소방서 굴절 1대 등 각 소방서들이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를 보유할 수 없게 됐다. 고가사다리차는 최고 46~52m, 굴절사다리차는 최고 27m까지 화재진압과 구조를 할 수 있는 특수소방차량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수소방차량의 운행정지로 출동시간이 다소 늦어지는 등 일부 화재진압과 구조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접 소방서 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내용연수가 2년 지난 고가사다리차 승강기에 타고 고드를 제거 작업을 하던 이석훈 소방장과 노은호 소방사가 바닥으로 떨어져 이 소방장이 순직하고, 노 소방사는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235) 김종두



협박·폭력 강병규씨

이번엔 사기죄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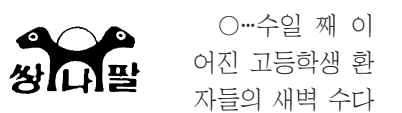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영화배우 이병헌(40)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승인 강병규(39)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고가의 명품시계를 지인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시계만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 도심공터미널에서 시계 판매점을 운영하는 최모씨에게 "시계를 원가로 주면 친한 형에게 팔아 주겠다"고 속인 뒤 로저두브(Roger Dubuis) 1개와 톨렉스 2개 등 시가 9800만원 어치의 명품시계 3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잠 좀 자지" 병원 수다 교고생 폭행



○수일 짜이 어진 고등학생 한 자들의 새벽 수다에 잠을 청할 수 없자 결국 주먹을 휘두른 40대 입원환자가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황모(49)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모 병원 자신의 입원실에서 친구를 보러 온 입모(18·광주 모 고교 3년)군의 어깨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입군은 황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김모(18·광주 모 고교 3년)군과 놀기 위해 닳새째 새벽에 병실로 찾아왔는데, 경찰에서 황씨는 "다른 환자들도 5명이나 있는데, 매일 새벽에 놀러와 불을 켜고 시끄럽게 떠들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춤고 배고파... 교도소 보내주"

경찰, 거짓 자백 30대 밥 먹여 훈방

지난 31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관천파출소. 최모(33)씨는 이날 게 발로 관천파출소를 찾았다고 경찰관에게 "며칠 전 강도짓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자수했다.

그는 파출소에서 "지난 20일 북구 운암고가 아래에서 행인을 폭행한 뒤 현금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자백했다. 얼마 뒤 최씨는 파출소 측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강력팀 형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강도범을 접해본 형사는 최씨의 진술이 뭔가 미심쩍다고 생각해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최씨의 말이 일정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

결국 최씨는 자신이 '거짓 자

백'을 했다는 사실을 형사에게 털어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고 뜬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오갈 곳이 없게 되자 속식을 해결할 수 있는 교도소로 가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는 형사에게 "강도짓을 했다"고 말하면 밥과 잠자리가 제공되는 교도소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최씨는 수년 전부터 홀로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리다가 최근에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PC방을 옮겨다니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최씨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아침식사를 제공한 뒤 훈방 조치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지리산 불 완전 진화... 임야 25ha 태워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인 지난 31일 오후야 완전 진화했다.

구례군 산불진화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0분께 토지면 구례동중학교 뒤편에서 발생한 불로 이를 동안 임야 25ha(25만㎡)가 불에 탔다.

전남도와 구례군, 소방방재청으로 구성된 산불대책본부는 헬기 17대와 인력 1600여명 등을 투입했으나 산불 현장의 산세가 험하고 날씨가 추위

진화작업에 애를 먹었다.

이번 산불은 전남 오후 7시께 진화대가 철수함에 따라 피해 면적이 12ha(12만㎡)에서 두 배 가량 확산했으나 화재 발생 22시간 후인 오전 11시께 주불이 잡히면서 진화됐다.

한편, 산불 현장으로부터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민가 30여채와 지리산국립공원지역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여수 PC방 마스크 강도

420만원 빼앗아 달아나

지난 31일 오전 9시께 여수시 학동 한 PC방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강도 2명이 침입해 PC방 업주 심모(여·32)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0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 등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심씨는 경찰에서 "흉기를 든 남성 2명이 갑자기 PC방으로 들어와 손목을 테이프로 묶은 뒤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PC방에는 손님이 없었으며, 심씨는 아르바이트생과 근무교대 직후 20대로 추정되는 강도 용의자들과 맞닥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의 진술과 PC방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고향의 정 맛 보세요"

광주시 북구 새마을 부녀자회 회원들이 지난 31일 귀성객들이 광주역에 도착하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고향의 훈훈한 정을 건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관계 동영상 찍어 협박

광주서 30대 남 2명 잇따라 검거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한 3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31일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송모(37·서울시 동작구)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9년 10월 2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

동 A(여·37)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지난 19일 밤 10시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등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동거하며 지내는 A씨가 자신에게 "해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컴퓨터 수리업자인 송씨는 자신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하드디스크 5개, 노트북 1개,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 USB 3개 등에 나눠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광주남부경찰은 애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뒤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강모(32·남구 월산동)씨를 성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B(여·37)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최근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격분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5차례 주박가 강절도

30대 구속·2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31일 광주지역 주박가를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서모(30)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씨가 훔친 금품을 금은방에 팔아준 뒤 돈을 챙긴 안모(30)씨 등 2명을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8일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김모(여·38)씨의 집에서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금반지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는 등 지난해 9월부터 25차례에 걸쳐 총 6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bitgosi Academy. Text includes: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227-8088', '252-0252'.